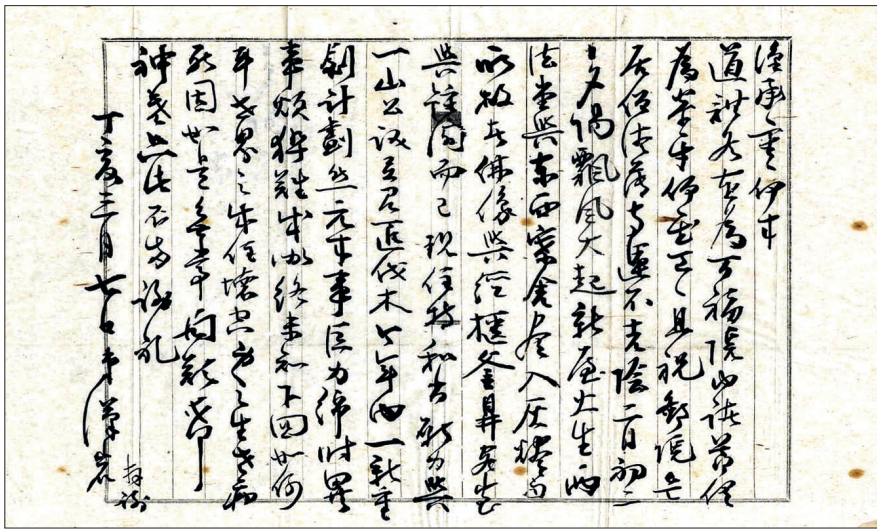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2)

### “세상은 성주괴공 무상할 뿐”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경봉(鏡峰)스님께 보내 주신 편지는 염려하는 마음과 함께 잘 받았습니니다.

법제가 여전히 청정, 만족하고 사찰의 모든 대중들(諸僧)이 태평하시니 기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이곳은 산승(山衲)이 덕(德)이 박하고 게다가 사찰의 운세도 불길한 탓으로 음력 2월 초이튿날 석양 무렵에 회오리바람이 크게 일어 새로 지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니다. 그래서 양대(兩大) 법당과 동서에 있던 요사채가 모두 화마(火魔)에 휩싸여 재가 되었습니다. 겨우 건진 것은 불상(佛像)과 경계(經櫃), 경전을 담은 함과 가마솔과 객실(客室) 그리고 종각(鐘閣)뿐입니다. 현 주지 화상이 종목(宗木)의 원력과 산중의 공의(公議)로 대목을 부르고 벌목(伐木)을 해서 급내로 새롭게 다시 중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래 일은 크고 힘은 약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번잡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없어짐과 우리 몸의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니다. 그러나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흐려서 이만 줄입니다. 예(禮)를 갖추지 못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1947년) 3월 7일 사제(舍弟) 한암(漢岩)은 절하고 올림

이 편지는 통도사 극락선원에 주석하고 있는 경봉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날짜는 정해년(丁亥年, 1947년) 음력 3월 7일에 보낸 것으로 오대산 상원사 조실로 계시는 때이다.

한암선사와 경봉선사는 16세 차이로 한암선사가 무려 16년이나 연상이다. 그렇지만 서로 '사제(舍弟)'라고 칭할 정도

로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이다. 두 분의 인연은 한암선사가 약 6년간 통도사 내원선원의 조실로 계시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20여 년 동안 24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정서와 전기(禪機)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줄거리] (1947년) 음력 2월 2일 해질 무렵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그리하여 법당과 동서 요사채가 모두 타 버리고 그 화마(火魔) 속에서 겨우 가까스로 구한 것은 불상과 경을 담은 상자(經櫃), 가마솔, 객실, 그리고 종각(鐘閣) 뿐이었다. 다행히 국보인 상원사 동종과 문수동 자상은 화마를 피했던 것이다.

#### 상원사 전소 위로에 대한 답신

#### 경봉스님과 20여년 24회 서신 교류

당시 한암선사는 상원사 조실로서 72세였는데, 아직 겨울도 채 다 가기 전에 일어난 상원사 전소 사건은 만년의 한암선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선원 전체가 하루 저녁 사이에 재가 되었으니 삼라만상은 일체개공이라고 하지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이나 우리 몸의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기 그지없다”는 말에서 당시의 한암선사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 상원사 선원은 분사인 월정사 주지 이종욱스님의 원력과 산중대중들의 합심으로 그해 가을에 중창되었다. 급강산 마하연선원과 같은 건축양식이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이웃·노인 돌보기 등 나눔실천 앞장 청소년·재소자 교화도 평생 불사

##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현성정사 주지)

매달 안양교도소에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재소자 수계법회를 겸한 떡국 대중공양이 열리는 것이다.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가 착한일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연신 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이가 있다. 바로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다. ‘현성 스님’ 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포교’와 ‘복자’다. 청소년, 군(軍), 재소자 포교와 노인복지 활동. 얼핏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현성 스님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절로 숙연해지게 된다. 각 분야에서 30년 이상 봉사해온 꾸준한 정성 때문이다.

현성 스님은 청소년과 노인, 재소자와 군장병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포교에 힘썼다. 특히 1982년 4월 혜명양로원을 세웠으며 1980년대 중부전선 법당을 시작으로 무려 14곳의 군법당 신설을 주도했다. 또 석주 스님과 운문 스님에 이어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아 어려운 살림에도 깨끗하게 청소년 포교활동에 몸담았다. 스님은 이외에도 1981년부터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편안한 법문을 선사하고 있다. 또 명절 때면 쌀 127가마를 배어 3500명에 달하는 전체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떡국공양을 올린다.

#### ‘백미(白米) 선사’ 별로 싫지 않아

이런 스님에게 불은 별로야 바로 ‘백미(白米)선사’다.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많이 보시해서 불어진 별명이다. 이제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백미(白眉)선사로 불린다. 스님은 이런 활동이 모두 큰 스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한다.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성 스님은 40여 년 전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과의 추억을 더듬었다.

“청담 스님, 우리 노장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중노릇했겠습니까. 그 때 내가 도선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말 청담 스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요.”

1960년대 도선사는 깊은 산중 사찰이었다. 경남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현성 스님은 도선사에서 하루에 나무를 다섯 짐씩 하면서 공양주 일까지 도맡았다.

“울력이 하도 많아서 고마 딱 죽어버릴 지경이어서도 청담 스님은 보살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우리들이 직접 다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해우소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로 한가한 시간이었으나... 그 시절에는 도선암 오솔길 오르내리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었어요.”

현성 스님은 청담 스님의 ‘지고 살라’는 가르침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은사의 당부를 철심어 닦은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예전에는 도선사 길이 많이 험했어요. 큰스님 출타 후 도선사로 올라오실 때 상좌들이 스님을 태워 보냈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고갯길에서 쉬는데 스님께서 나에게 물었어요, ‘현성이 너는 만약 불교정화를 하면서 피해

를 받은 태고종 쪽 이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답했습니다. ‘큰스님이 내 눈 앞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도 영뿔을 하며 지켜보시는 겁니다. 악연이 있어 나와 다투는 것인데 내가 깨달으면 그 연이 얽힌다는 것이지요.”

현성 스님은 “스님께서 이어 ‘큰 중이 되려면 남한테 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 성격이 급하니 고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 도선사를 나와, 수행잡자로 정진

현성 스님은 행사시절 도선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

#### 은사-청담스님, 법사-석암스님

‘지고살라’는 은사 가르침 명심

#### ‘혜명 양로원’ 건립은 노인복지 효시

청소년교화연합 이사장, 꾸준한 활동

#### ‘전국구 수계사’... 군법당 14곳 건립

#### 도선사 주지 맡아 도량 일신 기여

“자비실천과 전법은 돌이 아닙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사로 계를 내리는 현성 스님. 현성 스님은 지금도 매달 일선 군법당을 다니며 수계를 비롯해 법문을 하는 등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절에서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단호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성 스님은 그 길로 도선사를 나왔다. 영천 은해사로 발길을 돌린 현성 스님은 꿈에서 청담 스님을 만난다. 청담 스님은 꿈에서 부산 선암사 선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로 향했다. 선암사에는 선사인 석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선암사에 방부를 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청담 스님 문하는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딱 한철만 지내보시고 싹이 없어 보이면 가라’고 하시라 고 했지요.”

석암 스님은 현성 스님에게 몇 가지 청규를 제시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찰이니 농사일을 도울 것, 둘째는 참선을 하더라도 가끔 제사가 있으니 금강경을 읽어줄 것, 셋째는 제사음식을 귀신이 먹다 남은 것이라 해서 가리지 말 것, 넷째는 아침 울력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 이었다.

현성 스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겠다’고 다짐하고 선방에서 참선과 계율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겨울철 선암사에서는 17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참선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스님은 일주일 만에 몸이 축이 났다.

“하다 보니 얼굴은 별것에 상기되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뒤뚱뒤뚱 죽겠는 겁니다. 일주일 좀 지나니 상태를 알아차린 석암 스님이 불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세니 기운을 위로 올리지 말고 밀로 빼는 수승하 강을 하면 정진이 잘 될 것이다’라고요. 한 이틀을 가르쳐주시 대로 하고 나니 기운이 밀로 싹 빠져 머리가 맑아 집니다. 21일 용맹정진에 들어가는데도 잠을 자나 안 자나 똑같더군요.”

스님은 당시 결제를 마친 7명 중 한명이 됐다. 그 이후로 현성 스님은 12년 간 선암사에서 정진했다.

“해제날 석암 스님이 ‘산철 100일기도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지요. 나아 기뻐졌지요. 이후 1200일 기도까지 하게 됐고, 석암 스님의 보살계 법석을 항상 수행했지요. 석암 스님 회상에서 인환 스님, 고산 스님과 함께 배웠지요.”

현성 스님은 이후 1970년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청담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총무원장 소임을 맡는 것은 불법입니까?”하고 묻는 스님을 청담 스님은 “그래 니 말이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서대문구 14개 동 저소득 가정에 쌀 100포대를 전달하는 모습.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해 ‘백미’ 선사라고도 불린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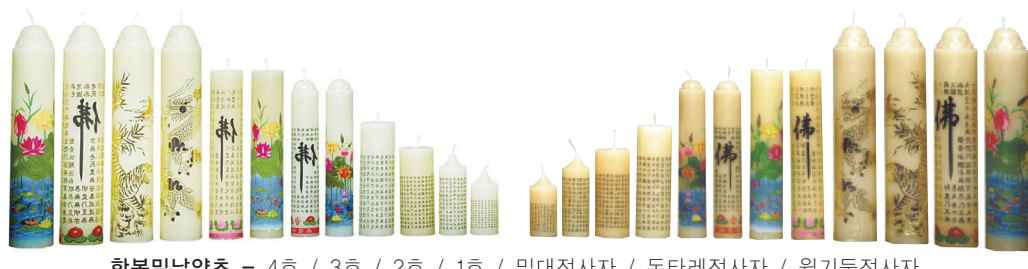
3×6사군자 (7.4×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톤대전사자 / 원기동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악취아광연동연꽃양초 / 악취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